『中國學』第65輯 (2018.12)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8.65.65.16
pp.265-284 ISSN : 1229-9618

동북아해역에서 근대학술 성립의 양상*
— 일본 중국학의 탄생과 현재

서광덕**

【목 차】

1. 거울로서의 일본 중국학
2. 필로로지의 중국학
3. 현대중국연구의 중국학
4.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보는 중국학

【초록】
동북아해역에서는 근대 이전에도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여 중국의 전통학문인 한학이 한반도와 일본에 수용되었다. 도쿠가와 막부시절 일본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주자학은 조선과 중국본토를 통해서 들어와 짧은 시간에 큰 성장을 이루었고, 또 난학으로 대표되는 서양학문도 수용되었다. 이후 메이지시대를 맞이한 일본은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국학을 필요로 했고, 이 국학의 탄생과정에 서학과 한학이 길항하게 되었다. 근대 학문으로서 국학을 정립하려 했던 일본 지식인들은 근대 이전에 수용한 한학과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하며 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근대 학문으로서 일본에 중국학을 정립하는 문제와 연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구의 시놀로지를 참조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일본 중국학의 성립과정을 역사적으로 점검하고 현재 일본에서 중국학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의 향후 중국학에 대한 전망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시놀로지, 난학(蘭學), 한학(漢學), 국학, 중국학, 동아시아

---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skd2021@hanmail.net)

1. 거울로서의 일본 중국학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선 중국의 위상이 20세기말부터 대륙에서 일어난 국학붐에 제국학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듣는다. 일부의 다소 성급한 추론이긴 하지만, 근대이후 국민국가 중국의 형성과 함께 전개된 국학이 백여 년을 지나면서 민족학으로서의 국학을 넘어서 고대제국의 학문이란 예전의 성격을 회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중화문명 전반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정립이 필요할 거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중국학 연구의 위기와 도전'이라는 특집 주제에 부합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중국의 학술문화적 상황을 마주하면서 한국처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화문명권에 속해 있었으나, 19세기중반부터 새로운 문명과 그에 기반한 세계질서 속에 편입되지 않을 수 없었던 민족적 위기상황을 맞아 익숙한 과거였던 중국(문명적 의미)에서 탈피하고 낯선 미래로 나아갔던 근대 일본에서 중국학은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검토하려고 한다.

일본의 중국학과 관련해서는 이미 자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정리한 바가 있다.[1] 일본의 중국학에 대한 자국인들의 이와 같은 정리는 대체로 근대 일본의 국학(國學)의 성립이란 과제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과거 일본속에 들어와 있던 한학(漢學)이라 불리는 구중국학의 문제,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적 욕망과 연동된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한 동양학적 맥락에서의 지나학(支那學) 또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중국을 이상화하면서 형성된 전후(戰後)의 중국학 그리고 최근의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재구되는 중국학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일본학자들에게 중국학을 역사화하는 문제는 결국 근대 일본을 반추하는 일이면서 또 동아시아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정리를 참조하되 일본의 중국학을 크게 세 가지의 문맥으로 대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첫째 한학과 지나학으로 대표되는 필로로지의 중국학, 둘째 현대중국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중국학(연구), 셋째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보는 중국학 이다.

---

1)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山田利明, 『中國學の歩み』, 大修館書店, 1999. 江上波夫 편, 『東洋學の系譜』, 제2집, 구미편 총 3권, 大修館書店, 1992. 砺波 護·藤井 讓治 편, 『京大東洋学の百年』,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2. 平野 健一郎·土田 哲夫·村田 雄二郎·石 之瑜 편, 『戰後日本の中國研究』, 平凡社, 2011. 岸本美緒 편, 『東洋學の磁場』(帝國日本の學知 제3권), 岩波書店, 2006.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1989 (한글본) 미조구치 유조, 서광덕·최정섭 역, 『방법으로서의 중국』, 산지니, 2016.

2. 필로로지의 중국학

일본의 중국학은 근대적 학문체계의 형성에 따라 외국학의 하나로서 성립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중국학은 서구의 각 국민국가에 대한 학문이 소개되고 그것이 외국학으로서 자리매김되었던 것과는 성격이 달랐다. 그것은 중국과의 오랜 역사·문화적인 연관 때문이다. 즉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한 일본은 일국적 지식의 수립-자국학의 수립-이 일차적으로 요청되었는데, 근대 일본의 국학은 일본민족의 정통성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그 학문의 대상이 일본민족의 고유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는 일본에 들어와 있고 또 이미 내면화된 중국적 전통을 구분하고 배제하는 작업이 전제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의 중국학은 처음부터 자신 속에 익숙해 있던-아니 차라리 일본적이었던-중국적인 것을 분리하여 따로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학문상 중국의 타자화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리가 처음부터 선명하고 순조롭게 전개될 수는 없었다. 바로 여기에 일본 중국학의 고민이 있었는데, 물론 메이지 시대 이전에도 일본에는 전통적인 한학과 이에 상대되는 국학 그리고 양학(난학)이란 세 학풍이 나뉘어 존재했다. 여기서 '한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잠시 한학이란 명칭에 대해 설명해두어야겠다. 이른바 '한학'이라는 명칭이 갖는 함의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한학'이란 송학(宋學), 명학(明學), 청학(淸學)처럼 각각의 시대를 주도한 학문의 경향을 지시하는 용어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런 맥락에서라면 '한학'이란 한대에 특수하게 발달한 훈고학을 지칭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중국에서 거론되는 '국제한학'[2]이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학의 다른 이름으로 한학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학이 유럽의 시놀로지의 번역어로서 도입되었으며, 대만을 비롯하여 현재는 대륙 중국에서도 중국학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 프랑스 등의 유럽에서도 중국학을 대신해 한학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3] 또 한 가지는 청대의 고증학을 가리키는 용어로서도 한학이 사용되었다. 즉 문자학 등의 소학(小學)에 기초한 문장의 해독에 방점을 둔 첫 번째 의미의 한학의 연장선상에서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다. 이상의 용례와는 달리 일본의 한학은 대체로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중국의 학술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하겠다.

에도(江戶)막부 시대의 한학은 주로 막부의 정치이념의 형성을 수행하고, 정치사상과 윤리관, 유교적 가치관의 확립과 실천을 중심으로 했다. 분명히 주자학파와 양명학파도 존재했지만, 그것은 주자학과 양명학의 철학적 탐구가 아니라, 정치적·윤리적 응용을 주로 했다. 그

---

2) 국제한학이란 '국제'와 '한학'을 결합한 말로서 고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중국학을 단일한 국제적인 무대에서 교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학을 세계화한다는 취지의 용어이다.

3) 예를 들어, 대만에서 1983년에 '한학연구센터(漢學硏究中心)', 대륙에서는 1994년 '국제한학논단(國際漢學論壇)'이 설립되고, 다음 해에는 여기서 『국제한학』이란 정기간행물을 출판하였다. 한편 유럽의 사례로는 베이징(북경(北京))에 설립되었던 프랑스의 '중국프랑스한학연구소(中法漢學硏究所)'가 대표적인 예다. 이 연구소는 1944년부터 1949년까지 『한학(漢學, Han Hiue)』이란 잡지를 간행하기도 했다.

점에서 그들 한학자는 유관(儒官)이며 유자(儒者)였다. 물론 고문사파(古文辭派)라고 불리는 훈고학(해석학)과 고증학에 뛰어난 연구자도 있었지만, 대세는 실천적 윤리를 말하는 유자에 의해 점령당했다. 사서오경(四書五經)의 본문을 암송하고, 그 내용에 통달하고 있지만, 중국사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위치지을까 하는 체계화는 거의 없었다. 한시문(漢詩文)을 짓고 서화(書畵)에 능통한 문인취미도 또 한학의 범위에 들었다. 막부의 정치에서 무사의 교양, 서민의 윤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한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학은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받기 전 일본의 고유한 정신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를 대표로 하는 학문으로 고전문헌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종교성과 민중성을 표방하며 이후 근대 일본의 국문학이나 민속학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일본사상사 및 일본문화론을 전개시키는데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다.[4] 그런데 노리나가 등 일본의 국학자들이 중국 혹은 유교를 일본과는 구별되는 타자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국학을 창출하고자 하였지만, 중국과 유교는 오히려 국학을 대립적인 측면에서 성립하게 하는 토대로서 여전히 작용하였다.

한편 메이지 이후부터 점차 양학(洋學)의 비중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한학과 국학 역시 서양의 근대적 학문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게 된다. 일본의 양학(洋學) 수용의 역사는 1543년 포르투갈 상선이 다네가시마(種子島)에 기착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막부 시대에 남만학(南蠻學)과 난학(蘭學)으로 전개되다가 1858년 쇄국정책을 포기하고 개항한 이후 서양 문물의 수용을 총칭하여 '양학' 또는 '서학(西學)'이라고 불렀다. 도쿠카와(德川) 막부시절에는 기독교 금지령, 양서 수입 금지령, 내항금지령 등에 의해 서양 문물의 수용 역시 실용적이거나 자연과학적인 것에 국한되었다. 이후 메이지 초기까지는 주로 난학을 통한 직접적인 수용과 중국을 통한 한적서양서(漢籍西洋書)의 수입으로 서양과 그 학문을 보다 널리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1866년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가 『서양사정(西洋事情)』을 출판하여 번역이 아니라 자신의 서양 이해에 기반한 책을 내기까지 한적서양서를 통한 서양 문물의 수용은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에 메이지 정부의 내국사무국(內國事務局)은 1868년에 '학습원(學習院)'을 개강한다고 발표한다. 이어서 '학사제(學舍制)'[5]라는 구상이 회람된다. 이 둘은 각각 한학과 국학(皇學)을 중시하는 바, 이후 한학과 황학을 병존시키자거나 황학을 주(主)로 하고 한학을 종(從)으로 하자는 등 우여곡절 끝에 근대적 교육기관인 도쿄(東京)대학을 설립한 것이 1877년이다, 이처럼 메이지 10,20년대는 양학의 수용에 따른 근대적인 학문 및 교육체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로 인해 한학과 국학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던 기간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학문의 일방적인 수용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근대적 학제 또는 지식체계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때도 일본에서 한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도쿄대학을 비롯한 제도권의 교육연구기관에서 국학과 함께 공존하다가 이후 동양학의 한 분야인 지나학으로 재편되게 된다.

일본의 근대적 학문 및 교육체계의 수립이라는 과정은 일본 중국학의 성립에도 나타나게

---

4) 일본의 국학에서 근대적인 국문학 등으로의 전환에는 단절의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경향이다.

5) 막부의 교학인 유학(한학)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또 서학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되는데, 도쿄대학의 설립이라는 제도화의 과정과 여기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쿄대학은 처음에 법과·이과·문과·의과의 4개 학과를 두었다. 문과를 제외하면 모두 당시 메이지 정부의 유럽화정책을 대변하듯이 실학중심의 학과들이었는데, 여기서 문과에는 사학·철학·정치학의 제1과와 화한문학(和漢文學)이라는 제2과로 나뉘었다. 제1과의 학문은 대부분 서양의 역사와 철학, 정치학 즉 양학이었고, 제2과는 국학과 한학으로 구성되었는데, 외견상으로는 유럽의 학제처럼 구성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아직 메이지 이전의 양학·국학·한학 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메이지 30년대 초에 설립된 교토(京都)제국대학에서 동양사와 지나철학의 강좌가 독립할 때까지 비교적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도쿄대학에서 메이지 22년에 한학과가 독립하지만 이때도 '한학'과였고, 메이지 43년이 되어서야 철학과 안에 지나철학 전공이 설치되게 된다. 상당히 긴 기간동안 양학과 한학이란 구분은 존재해왔던 것이다. 한학이란 명칭이 제도권 예를 들어 도쿄대학에서 사라지는 것이 1894년이다.

전통적인 한학을 대신해 유럽의 시놀로지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 지나학이고, 이것이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일본 중국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일본에서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의미의 한학이 등장한 것인데,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종래의 한학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유럽에서 중국을 지칭하는 China를 음역한 '지나의 학문'이란 의미에서 지나학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곧 서양의 중국학 즉 시놀로지의 일본명이 등장한 것이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일본의 전통적인 한학이 정치·윤리로서 유교의 사상을 살리는 실천적 방법과 시문(詩文)의 작법에 익숙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에 반해, 유럽의 시놀로지는 이(異)문명세계인 중국이란 지역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한학과 유럽의 시놀로지의 차이에 대해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는 이(異)국·이문화·이문명의 세계를 그 자체로 대상화하고 이행한다는 것은 반대로 자국·자문화·자문명의 세계를 대자적으로 대상화하고 이해하는 것과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 유럽의 시놀로지는 중국을 앎으로서 유럽을 대상화하고, 다시 그것을 통해 세계인식의 구조에 대한 검토에 이르는 것인데 반해, 일본의 한학은 이와 달리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이(異)세계를 상호 대상화하고 상대화한다는 유럽의 시놀로지적인 길과는 정반대로 이(異)없는 우리세계 결국 이(異)를 사상(捨象)하고 자기를 소우주로 한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한학은 외국학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일본학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6] 메이지 시기 도쿄대학 내에 오랫동안 화한문학(과)가 존재했던 것 또한 바로 이런 설명과 무관하지 않다.

일본 지나학의 최초의 성과는 바로 메이지 20년대 초기에 출판된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의 『지나통사(支那通史)』[7]다. 이것은 한학의 역사기술적 방식인 『십팔사략(十八史略)』이나 『사기(史記)』처럼 정사에 대한 유교적 해석이 아니라 역사를 사실의 집적으로서 개관하고자 한 것이다. 이어서 『지나통사』 발간 다음 해에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瓚次郎)의 『지나사』(5권, 1891년)가 나왔고, 1894년에는 이것을 요약한 『지나사요(支那史要)』(2권)가 출판되었다. 역사적

6)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1989, 6·7장 참조.
7) 이 책은 한문으로 쓰여졌는데, 이 점 때문에 당시 청나라의 지식인들에게도 환영을 받았고, 또 문헌에 근거한 중국통사를 갖지 못한 구미의 연구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으로 사물을 파악한다는 이러한 관점은 다른 중국학 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메이지 28년에 후지타 도요하치(藤田豊八)의 『지나철학사』, 다음해에 고죠 데이키치(古城貞吉)의 『지나문학사』가 세상에 나왔다. 철학사나 문학사라고 하는 범주는 유럽의 학문에서 생성된 것이다. 메이지 20년대에는 이처럼 사학·철학·문학 각각의 분야에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연구방법이 등장했다. 일본에서 중국학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메이지 20년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메이지 30년대에 교토제국대학에서 지나철학과·동양사학과 등이 설치되면서 중국철학·중국문학·중국사라는 학문형태가 완성되었다.

일본 지나학의 계보를 얘기하려면 도쿄대 한학과 초기 졸업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가노 나오키(狩野直喜), 후지타 도요하치, 구와바라 지쓰조(桑原隲藏), 다카세 다게지로(高瀨武次郎), 스즈키 도라오(鈴木虎雄) 등이다. 이외에 철학과 졸업생이었던 핫토리 우노키치(服部宇之吉),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 사학과 졸업생이었던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가노, 구와바라, 스즈키는 교토제국대학 창설기에 각각 중국철학, 동양사, 중국문학 분야의 기반을 세웠다. 특히 가노는 교토대학에 자리를 잡은 뒤 시놀로지를 목표로 삼았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문학·철학·역사를 중심에 둔 지나학과를 개설하고자 했고, 메이지 말기에 프랑스에 유학하여 샤반(Emmanuel Édouard Chavannes, 1865-1918) 등과 교류하고 프랑스 중국학의 방법론을 습득했다. 이후 교토대학의 동양학은 프랑스와 강하게 연결되었다. 가노와 핫토리 등의 지나학 연구는 유럽 시놀로지의 방법론인 과학적 실증주의를 표방한 문헌고증학을 바탕으로 삼았는데, 가노는 이러한 유럽의 방법론을 수용하면서도 중국철학이 지닌 서양철학과 다른 측면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지나학이 유럽의 시놀로지를 넘어설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런 생각의 밑바탕에는 일본의 한학 즉 고증학에 바탕을 둔 고전문헌의 해독능력이 있었다.[8]

그런데 중국의 고전문헌을 해독하는데 있어 적어도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 지역의 문장은 그 지역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처럼 중국문헌은 훈독법(訓讀法)에 의해 읽히고 있었다. 게다가 메이지 시기에는 예전의 훈독본과 다른 중국고전의 새로운 훈독본이 출판되었다. 특히 메이지 말기에 출판되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한문대계(漢文大系)』[9](冨山房 刊) 21권은 이러한 배경하에 나온 것으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계몽적인 서적의 출판은 메이지 시기 중국학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본의 지나학은 그밖에도 범위를 확장하여 도교(경전)연구, 지나문학, 지나사, 문자학, 과학기술사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아직 한학적 방법론을 답습하고 있던 도쿄대학 초기의 한학과 교수들에서 시작되어 그 제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나학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전후(戰後)에는 일본중국학회(1948년)와 동방학회(1947년)라는 종합학회를 갖추게 되었다.[10]

일본의 지나학과 관련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동양학'이란 개념이다. 원래 유럽

---

8) 山田利明, 『中國學の步み』, 大修館書店, 1999, 서장.

9)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중심으로 노자, 장자, 묵자 그리고 『근사록(近思錄)』, 『전습록(傳習錄)』, 『초사(楚辭)』, 당송팔가문(唐宋八家文) 등 25종의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모으고, 각각에 당대 학자들의 해제를 단 것으로, 새로운 활판에 문부성보고에 준하는 평명한 훈점(訓點)을 붙였다.

10) 자세한 것은 山田利明의 책 2장 참조.

에서 동양학은 지역마다 언어를 축으로 구분되고, 문헌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고증 즉 문헌학=Philology를 중심으로 대상지역의 역사, 문화, 종교, 민족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서(西)로는 이집트학, 투르크학에서 중국학, 일본학에 이르는 아시아 각 지역의 전통적 언어문화연구를 총칭하여 '동양학'이라고 부르고, 대학에서는 '동양학부(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로서 후계자의 양성이 도모되었다. 따라서 초창기 유럽의 동양학자는 대부분이 '문헌학자'였다.[11] 유럽의 시놀로지 역시 동양학의 하나로서 문헌학 즉 필로로지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동양학'이란 개념이 탄생된 데는 두 가지 계기에 의해서였다. 하나는 돈황문서(이 안에는 한문문헌외에도 티벳어문과 산스크리티어문 등과 중앙아시아의 언어로 쓰여진 문헌도 섞여 있었다)의 발굴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유럽에서 흥기하고 이에 영향 또는 자극을 받은 일본과 중국의 연구자들 역시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동서양문화교류사라는 분야로 관심이 모아졌고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연구영역을 망라해야만 했다. 이른바 일본에서 동양학이 돈황학(고전문헌해석에서 나아가 당시 사회상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성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주장은 이런 점을 대변하는데, 돈황학은 처음에 지나학의 하나로 출발했으나 이 돈황이 지닌 지정학적 의미로 인해 일본에서는 동서문명교류사라고 하는 분야에 주목하게 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불교의 전래,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 나아가 인도학, 중국학, 일본학, 이슬람연구 등을 포함하는 학문의 필요성에 의해 동양학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본에서 동양의 학술을 서구 제학문으로 연구하는 학문 곧 '동양학'이 탄생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도쿄제국대학 문학대학에 박언학과(博言學科)의 창설과 관련된다. 즉 1886년 제국대학령이 제정되고 이에 도쿄대학은 도쿄제국대학으로 편제되면서 이전의 문학부에 속했던 철학과·화문학과·한문학과 등 기존의 세 학과에 박언학과가 증설되어 4개의 학과체제로 출발하였다. 일본에서 박언학의 설치는 당대 서양 학문과 동시대적 위상을 갖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세기초 서구에서 고전 및 동양 연구가 증대되면서 산스크리트어의 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언어학이 탄생된 점에 그 의미가 있었다. 박언학이란 말 자체가 원래 필로로지의 번역어이지만, 아직 언어학이 정립되기 전에 사용되던 용어였다. 비교언어학은 언어의 본체는 글말이 아니라 입말, 문자가 아니라 음성에 있으며, 언어 변화의 규칙은 화자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합리적 질서에 따른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종래의 문헌학적 방법론을 비판하는 것이다. 박언학과의 설치 그리고 이런 비교언어학에 의한 연구는 일본 내적으로 기존의 국학 전통에서 독립한 일본의 근대적 국학을 정립하고, 외적으로는 일본어 연구에 비교언어학적 방법이 도입되어 주변 민족의 언어 즉 아시아 언어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면서 일본적 동양학의 등장을 촉진시켰다. 이 점은 연구자를 보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박언학과의 설치를 주도한 인물이 챔벌레인(Basil Hall Chamberlain, 1850-1935)이었고, 그는 박언학과와 화문학과 교수를 겸임하면서 도쿄제국대학의 일본어문학 연구의 기본틀을 정립한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와 하가 야이치(芳賀矢一)을 가르쳤기 때문이다.[12]

---

11) 中見立夫, 「日本的'東洋學'の形成と構圖」, 岸本美緒 편, 『東洋學の磁場』(帝國日本の學知 제3권), 岩波書店, 2006.

12) 류준필, 「19C말 일본 대학의 학과 편제와 國學·漢學·東洋學의 위상」, 『코기토』, 65, 2009, pp.214-219.

이처럼 박언학과의 설치는 일본적 동양학을 창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유럽의 동양학이 하나의 독자적인 학술영역이라면, 이와는 달리 부분적으로 유럽 동양학의 수용을 통해 형성된 일본의 동양학은 다양한 개별 분과 영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집합명사'에 가까웠다. 그것은 '동양' 또는 '동양학'이란 용어의 등장에서 알 수 있다. '동양'이란 용어는 도쿄대학 문학부(1877-1886)에서 1881년에 철학과가 단일 학과로 독립한 이후부터 '인도와 지나철학'이 강의 내용에 포함되고 다시 철학의 교과 내용 자체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으로 양분되었는데, 여기서 이미 '동양'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또 동양사학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하는 나카 미치요가 1894년 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모임에서 외국역사를 동양역사와 서양역사로 양분하자고 제의할 때도 '동양'은 단순히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동양학'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메이지 19년에 열린 '동양학회'로 알려져 있다. 이 학회는 도쿄대학 내에 설치된 고전강습과(古典講習科) 졸업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학회로 같은 해 12월에 『동양학회잡지』를 발행하였다. 이 속에서 "금일 유럽의 학자가 칭하는 바의 오리엔탈 필로조피는 동양철학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인도·중국·일본 등에 예로부터 전해지던 학문을 총칭한다고 했다. 이처럼 메이지 20년에 동양학은 하나의 집합 개념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일본에서는 서구와 달리 동양학이 하나의 학과 제도나 지식 편제를 구성하기에는 불안정한 개념이었다. 더구나 이런 불안정은 일본의 위치에서 기인하는데, 즉 동양에 속하는 일본이 자신을 제외한 여타의 동양을 객체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 유럽의 동양학이 갖지 않아도 되는 문제 즉 호명하는 주체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 역설이 일본의 동양학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동양학은 기본적으로 자국학의 배타적 독립성이 확립되는 과정과 분리되기 어려웠다. 달리 말해 일본의 자국학이 동양학의 성립의 암묵적 전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1886년 박언학과가 설치된 뒤 1888년에 도쿄제국대학에 국사학과가 설치된 것은 이런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중국학 역시 이런 흐름에 놓여 있었다. 일찍이 도쿄대학 문학부에 화한학이 자국학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1904년이 되면 한학이란 명칭은 보이지 않고, 지나철학·지나문학·동양사학 등이 독립된 학과로 등장하면서 한학은 사라졌다. 이처럼 화한학으로서의 자국학이 제국대학의 학과제도 내에서 사라지는 과정은 일본의 자국학-국어학·국문학·국사학-이 정립되고 동시에 일본을 제외한 동양학의 범주화 가능성이 모색되는 과정과 동시적으로 진행되었다. 바로 화한학의 분리는 중국학의 입장에서 보면 한학의 위상 저하 또는 새로운 변신을 요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동양학의 범주에서 그 변화의 길이 모색되어야 했다. 이 변화의 모색에 있어서 지나철학·지나문학과 같은 지나학의 분야에서 특히 역사학 방면은 이와 같은 일본의 국학과 동양학의 미묘한 관계를 많은 사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교언어학을 동원한 문헌학적 방식을 활용해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이는 시라토리 구라키치(1865-1942)가 1904년 도쿄대학 역사학과 교수가 된 이후 학과를 동양사학과로 바꾼 과정에서 드러난다. 지나사학과가 아니라 동양사학과였던 이유다. 일본에서 특정 지역을 아우르는 외국학의 집합개념으로서 동양학이 전문가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상황하에 일본적 동양학을 정의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학과였던 것이다.

스테판 다나카는 동양사 연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 확실성이 의심받는 것이지만, 당시 일본인들은 서구 근대문명이 낳은 진리와 객관성, 진보의 가능성을 수용하면서도 대상과 지식의 관계가 역사적 성격을 지닌 것임을 인식했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규정한 대로 따르지 않고 일본적 시각에 부합하도록 대상과 지식을 조정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동양'이라는 문서 보관소였다. 그리고 여기서 주요한 대상은 중국(즉 이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명칭인 지나)이었다. 쓰다 소우기치(津田左右吉, 1873-1961)는 '지나'가 19세기 말과 20세기에 역사적으로 재생했으며, '동양'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새로운 (광의의) 이념적 공간 속의 한 대상으로 변형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일본의 역사연구자들은 역사의 의미에 관한 저술이나 논쟁을 통해 '동양'속에서 일본의 역사적 내러티브의 시초를 발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기원과 '지나'와의 관례를 찾아냈다. 특히 동양사라는 학문분야를 통해 그 역사적 과학적 확실성을 획득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는 '동양'이라는 관념에 초계급적이고 불변하는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일본의 다양한 과거들을 이용했다. 서양으로서의 유럽이 일본이 자신과 견주는 타자가 된 반면에 지나는 또 다른 타자가 되었다. 지나는 대상이면서 일본이 발전해나간 출발점이기도 한 이상화된 공간이자 시간이었다. 이로 인해 '동양사'가 만들어지던 당시 '지나'담론이 발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것은 중국에 대한 전통적 연구인 한학으로부터 분리라는 특징을 가졌다. 한학은 고전문헌에 대한 면밀한 탐독을 강조하며 대체로 중국 역사가들의 왕조사적 형식을 추종했다. 그러나 메이지 시대가 되면 도쿠가와 시대에 시작된 중국의 탈구심화와 중국적 학문과 지식이 쇠퇴하면서 한학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다. 즉 한학이 중국에 대한 연구라면, 그것이 지나에 대한 연구인 동양사로 대체된 것이다. '동양사'의 의의는 일본이 자기 이해를 창조하는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사 연구에서 중국이나 아시아는 목소리 없는 사물이 되었다. 즉 동양은 일본의 진보적 발전에 대한 내러티브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양성의 원천이었다.[13]

이상과 같이 동양사 연구는 서양사가 세계사임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일본 또한 진정한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주변인 아시아 지역(특히 중국)의 역사를 활용하였다. 언어와 윤리적 훈련을 강조하는 한학에 의해 전수되어오던 중국사가 이제 동일한 법칙이 모든 인간 사회를 지배한다는 실증주의적 역사관으로 다시 정리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를 현재의 지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학자가 대신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는 교토대학 역사학과 교수였던 나이토 고난(內藤湖南, 1866~1934)이 1914년에 초판이 간행된 『지나론』의 서문에서 '지나인을 대신해서 지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라는 규정에서 잘 드러난다. 이후 이러한 논리는 일본 제국주의에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정치적 담론으로 변화하여 중국은 외부에서 처방을 내려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일본의 지나학에서 헤겔의 '지속하는 제국' 이미지를 수용한 정체된 늙은 대국이라는 규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나이토는 낙후되고 정체된 고대의 중국을 대신해서 새롭게 이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신념을 1920년 9월 1일에 『지나학』이란 잡지의 창간으로 드러낸다. 잡지 『지나학』의 창간과 새로운 지나학은 결국 근대 일본의 아카데미즘을 지배하는 서구 근대의 인문과학에 대한 위기의식과, 서학의 성행과 표리 관계에 있는 중국을 멸시하면서 아울러 중국연구 또한 경시하게 된 것에 대한 위기의식,

13)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함동주 역,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1장.

이 두 가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던 것이다.[14]

시라토리 구라키치, 나이토 고난과 쓰다 소우키치 등에 의한 동양사 연구[15]는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을 대신할 '동양' 개념을 창출하고, 서구의 선진성을 마주하면서 동양의 대등함을 설명하고 일본의 선진성을 밝히는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이처럼 동양사 연구는 실증적인 방법 특히 비교언어학을 이용한 엄격한 문헌비판과 고증을 통해 연구를 진행시킨 결과 중일전쟁이전까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비교적 정교하고 세밀한 연구 구조를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점차 일본과 대륙을 접근시키기보다 점점 더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더욱이 이후 세계-그 중에서도 아시아-가 변화함에 따라 일본은 딜레마에 직면했다.[16]

3. 현대중국연구의 중국학

일본 지나학의 연구들 가운데 동양사 분야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국주의 일본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17] 그것은 서양 숭배와 동양 멸시 반대로 서양 초극과 동양 복원이라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1940년대 대동아공영권 이념을 형성하는데 까지 동양사 방면의 연구가 결합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역사 서술의 중심에는 일본이 있고, 이것은 일본학의 성립 및 전개와도 연동했다. 그리고 여기서 지나는 교화의 대상이자 오래된 미래였다. 동양사 및 지나학의 필로로지적 연구는 바로 이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해내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미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제창한 것처럼, 대동아공영권 이념을 상정하고 이제 중국을 향해 동문동종(同文同種)을 부르짖던 논리의 이면에는 지나학에 의해 부정된 고대 동아시아 지역의 지식인들이 공유했던 소양으로서의 한학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음도 목격할 수 있다.[18] 이런 한학의 전통은 전후에도 되살아났다. 예를 들어 미조구치는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등의 전후 중국학이 중국밀착(본위)형 연구 즉 중국을 이상화하는 성격을 갖게 된 원인으로 전전(戰前)의 중국 정체론의 극복, 중국혁명의 옹호 등 시대적 요구로 인해 차별과 대치보다는 인정과 연대를 강조한 측면에서 지나를 '사상사 또는 정신상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한학적 토양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19] 또 일본의 근대화를 서

14) 고야스 노부쿠니, 김석근 역, 『일본근대사상비판』, 역사비평사, 2007, 제2부 제1장.

15) 이들의 동양사 연구에 대한 위의 정리는 대단히 소략하다. 이들의 동양사 연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현재까지 발표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참조하기 바람.

16) 이상은 스테판 다나카의 책, 2장 참조

17) 스테판 다나카의 책 목차만 보더라도 동양사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일본의 분리, 이를 위해 요순우(堯舜禹)의 정체 밝히기, 유교와 중국의 분리, 역사로서의 유교(중국)의 쇠퇴 등, 이렇게 해체시킨 뒤 일본의 기원에 대한 탐색으로 나아가고, 지나의 객체화를 서술하는 식으로 전개된 것이 바로 일본 동양학의 구조이다.

18) 지나학자 쓰다 소우키치가 한학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을 가했던 것은 이와 연관된다.

19) 이러한 해석에 대해 이견(異見) 또한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미조구치는 중국을 자신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이런 시각으로 인해 자신이 주장한 중국의 독자적인 근대 역시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구식의 추종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한문소양과 같은 한학적 전통에 기반한 근대화 소위 '한문맥(漢文脈)'이라는 시각(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설명)에서 보려는 연구 또한 이런 예에 해당할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연구경향은 일본 근대를 서양의 모방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려는 시도의 하나이다. 결국 지나학의 성립과 전개 속에 한학의 전통이 가끔식 회복되는 바로 여기에 일본 중국학의 특징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

지나학은 중국학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전후에도 계속되지만, 한편으로는 신랄한 비판에 봉착한다. 그것은 동양사를 비롯한 지나학이 제국일본의 세계정책하의 동아정책에 동조하면서 여전히 일본의 동아시아에서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지나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정체된 상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 비판의 대표주자인 다케우치 요시미는 당시 지나학을 학문이 지녀야할 기본적인 덕목인 부정의 계기가 없는 답보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는「지나를 쓴다는 것」(1942)이라는 글에서, "문학자가 관념에 기운다든지 말에 기운다든지 해서는 곤란하다. …… 적어도 지식은 그것을 부정하는 계기(정열이랄까)가 없이 지식으로서 생존할 수 없다. 지식은 부정하기 위해서 추구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문학적 태도이다. 내가 주석없이 중국문학이라고 할 때, 늘 태도로서의 문학을 말하는 이유이다."[20]라고 말한 것은 소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이전의 일본의 중국학이 지닌 폐쇄성을 대한 비판이었다.

현대중국연구 특히 루쉰(魯迅)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낸 다케우치가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 현대 중국과 조우하게 된 것도 지나학과의 논쟁을 거치면서부터였다. 다케우치의 지나학 비판의 요지는 앞에서 말한 폐쇄성 즉 현실생활에서 이탈하고 인생의 열정을 감소시키는 실로 서재식 학문으로 떨어져버렸다는 점에 있었다. 이런 학문은 지식을 축적시킬 수는 있지만, 사상을 형성하거나 현실의 오류를 직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았다. 더욱이 당시 지나학은 모든 정신활동을 '지식'으로 변화시키고, 여기에 '과학'이란 월계관을 씌워서 절대적인 권력으로 변화하였다. 그래서 그는「한학의 반성」이란 글에서 "왜 한학이 오늘날 타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타당한 자각과 타개책의 강구를 희망한다."라고 썼고, 앞으로 중국연구는 현실에 기반한 역동적인 학술주체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했다. 급기야 자신이 발간하고 있던『중국문학월보』를 폐간했던 이유도 자신이 추구했던 중국 연구가 지나학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데서 온 자아부정 또는 자아회의의 비판정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은 다케우치의 비판이 아니더라도 지나학을 계승한 후대 연구자들 내에서도 지나학이 중국의 고대 문헌에 대한 고증학적인 연구인 관계로 변화하는 중국이란 대상을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점은 인정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필로로지적 연구방법은 문헌에 대한 정확한 해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문헌의 사회역사적 맥락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또 '지금' 중국을 '왜' 연구해야하는가라는 연구주체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분명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유럽의 중국학과 달리 처음부터 중국학은 외국학이 아니라 자국학으로서 한학의 전통이 존재했었다. 이는 미조구치의 표현대로 이별화(異別化)의 경험을 확대하지 못하는 경향을 낳았다. 다시 말해 지나학조차도 예를 들어 사상을 각 민족에 고유한 역사와 사회의 소산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특정의 민족의 사상과 문화를 본가시(本家視)하고 보편시

20) 竹内好,「支那を書くということ」,『内なる中國』, 筑摩書房, 1987, p.124.

(普遍視)하는 일원적(一元的)인 세계관을 낳는다든지, 또 중국적인 독자 세계의 해명에 있어서 '지나의 사회적 정치적 상태와 그 역사적 추이'에 무관심한 채, '유학(儒學)에 의해 지나 전체를 알 수 있다는 듯이 착각'하는 유교이론적인 경향을 낳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결국 대상을 권위로 삼고 이로 인해 자기의 연구가 정체되는, 곧 외국학 연구자들이라면 지향해야할 연구시각상의 폐단을 발생시킨다.

전후의 중국학 특히 고대 중국에 대한 연구는 이상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의 유산 또는 고대 문헌 속에 존재하는 중국이 아니라 현대와의 연결이라는 시각에서 연구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미조구치가 전후의 송명학 연구를 들어 설명한 것을 예로 들어 보자. 전전의 국수주의와 대동아주의가 전후에는 서구 인문주의와 아시아 민족주의로 대체되었고, 1949년에는 혁명중국마저 탄생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선취(先取)하고 있었던 듯, 전후 일찍이 전혀 새로운 송명학연구가 출현하였다. 시마다 겐지(島田虔次)와 니시 준조(西順藏)의 연구가 그것인데, 두 사람은 아시아적 정체론(停滯論)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각각의 학(學)의 근저로 삼았다. 국수주의나 대동아주의의 내향적·배타적인 방법에 근거하지 않고, 예를 들어 시마다 겐지는 서구 인문주의의 입장에서, 니시 준조는 아시아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아시아적 정체론은 아시아에 유럽형의 근대가 없다는 것을 하나의 기둥으로 삼은 논(論)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도 자연히 중국의 근대를 시야에 넣은 송명학연구가 되었다. 시마다의 경우는 유럽형의 근대의 전개가–설령 '좌절'했다고 하더라도–중국에도 있었다고 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서구 인문주의를 인류사적 보편으로 삼는 입장에서, 송명사상 속에서 인문주의적 '근대'를 발견하려고 했고, 한편 니시 준조의 경우는 유럽으로부터 '몰(沒)'근대라고 간주된 그 '몰' 속에서 오히려 아시아의 주체를 발견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아시아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시마다와는 반대로, 예를 들어 송명학의 부정을 통하여 중국의 재생을 도모하려고 한 청말(淸末)의 혁명적 지식인 속에서 중국의 있어야 할 '근대'를 발견하려고 하였다.

미조구치는 이 두 전후 중국사상연구자의 예를 통해서 향후 송명학을 대상으로 하여 고대 중국연구의 문제점과 그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송학·명학 등의 과거의 중국학을 청대와 연관짓고 근현대와 연관지어 부감(俯瞰)하는 시각의 필요성이다. 둘째, 송학·명학을 송대·명대의 정치·사회와의 연관으로부터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현대중국을 시야에 넣어서 일본한학이래의 '중국없는 중국학'의 전통(단, '중국없는 중국학'으로부터 일본정신·동양도덕 등의 '주관(主觀)'만을 취하고, 객관·실증주의를 표방하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철학'이나 사상의 연구가 사회와 정치로부터 분리되어도 이상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메이지 이래의 철학, 문학, 어학 세 과(科)의 분리로 인해 그 바깥의 역사학과 법학, 정치학, 경제학 등의 분야와 연구면에서 교류하는 일이 극히 적었던 분과학문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학으로서의 송명학연구라는 자각을 갖는 것이다. 먼저 유럽이라는 '이(異)'와 유럽으로부터 본 아시아라는 '이(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실은 송명학연구에 있어서는 그 기반이라고도 해야 할 것인 아시아간 서로의 '이(異)'의 문제가 크게 놓여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조선, 중국 사이의 '이(異)'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여기서 비교는 사회·정치·경제 등의 시스템을 포함한 비교이다.[21]

한편 미조구치는 자신의 중국연구를 전개시키기 위해 전후 중국학의 역사를 개관한 뒤 이를 크게 두 가지의 경향으로 대별하였다. 곧 하나는 유럽의 진화사관에 의거해 중국적 진화를 '세계'사적 보편에 놓고서 그것에 줄세우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다른 하나는 혁명에 성공한 신(新)중국상을 유럽의 근현대상에 대치시키고, 여기에 유럽과 동질대등(同質對等) 혹은 이질대등(異質對等)의 가치 때로는 초월적인 가치까지 인정하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22] 후자는 1950,60년에 서구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시아 각국의 연대가 이루어져 세계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것과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여 일본의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미래상으로 비쳐지면서 새로운 중국상(中國像)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다케우치는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제창하였는데, 여기서 아시아는 전전에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 '국수적 대동아주의'를 형성했었을 때의 아시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체로서의 아시아가 아니라, 서구에 대한 '저항'과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에 대한 저항까지를 경험하여 탄생한 아시아(이런 경험을 가진 것이 바로 아시아)상을 수립하고, 이런 경험을 전혀 갖지 못한 일본이 자신의 근대를 비판하고 다시 아시아로 복귀하는 것을 전후 일본이 나아갈 길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다케우치가 말한 '아시아'는 바로 '중국'이었다. 전자는 전전의 지나학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이들의 연구는 주로 중국 고대와 중세에 대한 연구이지만, 현대중국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전통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중일국교수복이후 다시 등장한 일본 내셔널리즘과 결합하여 전전의 '대동아'가 출현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위험성이 존재했다. 이렇게 본다면, 전후에도 중국연구는 지나학과 새롭게 다케우치 등의 현대중국연구, 미조구치의 표현대로 한다면 '중국없는 중국연구'와 '중국밀착형 중국연구'가 길항하는 관계에 놓여 있었고, 동시에 각각의 중국연구는 일본의 아시아주의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미조구치는 향후 중국연구에 대해 앞서 말한 '중국없는 중국연구'와 '중국밀착형 중국연구'를 지양하고, "연구가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연구의 목적을 중국과 자신에 두지 않고, 결국 목적이 중국과 자신의 내부에서 해소되지 않는, 역으로 목적이 중국을 넘어선 중국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미조구치는 "자유로운 중국학"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중국을 방법으로 하는 중국학'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란 "중국을 방법으로 하는 것은 세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 중국을 방법으로 하는 세계는 중국과 유럽을 각각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보는 다원적인 세계이다. 따라서 세계의 하나인 중국은 자신의 세계를 세계로 보여주고, 또 자신의 렌즈로 유럽과 세계를 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염두에 둔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중국연구이다.

이것은 다케우치의 중국연구와 일정하게 맥을 같이 하면서도, 다케우치의 중국연구가 여전히 서구중심의 역사주의적 관점에 입각해서 중국(그런 점에서 아시아)을 서구근대극복의 대안 혹은 탈근대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면, 미조구치의 '방법으로서의 중국'은 새롭게 세계를 읽

21) 溝口雄三, 앞의 책, 7장.
22) 溝口雄三, 앞의 책, 5장.

어내는 하나의 자산으로서 중국을 객관화시키고 일본과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 모습'을 찾고자 했다. 그는 자신의 중국학에 대해 "중국을 방법으로 하는 것은 이런 일본도 상대화하는 눈에 의해 중국을 상대화하고, 그 중국에 의해 다른 세계에 대한 다원적 인식을 충실히 하는 것, 또 세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상대화된 다원적인 원리 위에서 한층 더 고차의 세계상이란 것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다케우치 등의 연구가 현대중국에 국한되었으며, 그리고 그의 연구가 객관적인 연구가 아닌 점에 반대하고, 시야를 보다 넓혀 중국의 중세로까지 확대하고 또 연구방법론 또한 이전의 지나학자들의 연구성과들도 차용한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나학의 계보를 잇는 전후의 중국연구자 쓰다 소우키치의 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평가를 내린다. 일반적으로 서양문화='세계'문화를 척도로서 지나문화를 정체의 문화로 간주하고, 한편 세계적인 일본문화의 독자성을 지나문화의 차별화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그런 지나차별화를 강조했다고 평가받는 쓰다의 중국연구이지만, 그의 연구가 지닌 원리주의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한다. 즉 쓰다의 연구관점을 '고대지나학=정체관=지나멸시 혹은 지나멸시=근대주의=중국적 독자성'이라고 보는 종래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쓰다가 발견한 이런 지나문화의 원리와 구조 및 그의 정체론적 인식의 타당여부는 폄하와 멸시라는 가치판단과 분리해서 살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또 쓰다가 중국문화와 사상의 근저에 대한 관심을 지녔던 그의 원리주의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지나의 사상과 문화가 일본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다시 말해 지나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이 단지 표층레벨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보다 원리적인 추출에 이르고 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쓰다의 연구를 비판하기보다 그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향후 연구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23]

4.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보는 중국학

미조구치는 1990년대 중반에 다른 중국연구자들과 공동으로 편한 『아시아에서 생각한다』 7권을 통해 중국연구의 시각을 아시아로 확대한다. 이 작업은 앞에서 지적한 전후 중국학의 방향 특히 중국학의 여러 분과학문의 성과를 교류하고 나아가 사회과학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 변화하는 중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것과 관련된 것이며, 아울러 일본의 중국학을 일국적 관점을 지양하고 보다 넓은 시좌와 논의의 장에서 펼치기 위한 시도였다. 그는 이 시리즈의 발간 취지에서 아시아 개념의 형성과정에 대해, "아시아 개념이 소여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방식에 의해 형성되어온 역사적 개념이며, 또 아시아의 지역관계도 내부에 서로 투영되는 장이었던 점"을 지적한다. 아시아 개념이 서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어온 것이라는 종래의 관점을 폐기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온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아시아에서 생각한다'는 말은 "유럽 또는 일본이란 좌표축이 아니라, 아시아 자체의 내부에서 구상하는, 다시 말해 아시아를 자신의 인식장(認識場)으로서 어떻게 위치지

23) 溝口雄三, 앞의 책, 6장.

울 것인가"를 묻는 질문인 셈이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의 역사적 의미 또는 근대라는 가치의 현대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이기도 하다. 곧 아시아에 있어서 지역과 국가, 제도와 집단, 경제와 사회, 역사의식과 자기인식 등의 현대적 주제가 당면하고 있는 변화를 탐구하는 것은 바로 현대세계의 역사적 변화를 아시아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의 근대를 재검토하면, 일본의 근대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20세기말과 21세기초에 걸쳐 일본에서 다시 아시아가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1960년대에 아시아가 문제시되었던 일, 그리고 훨씬 전에 후쿠자와 유키치 등에 의해 아시아가 거론되고, 이후 대동아공영권으로 연결되었던 과거사 등과 대비해서 현재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훨씬 근본적인 시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완에 그쳤지만, 1970년대에 다케우치가 '아시아학'이란 개념을 제안했던 것 또한 바로 이런 문제의식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지역네크워크와 주변적 시각 그리고 문화인류학의 도입, 국민국가상의 탈피, 사회문화의 변화에 주목, 민중운동과 지식인들의 체제구상 등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제 본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 동아시아 연구와 관련해 야심작을 내놓은 이가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인데, 그는 대표작『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에서 아시아가 과연 부여된 아시아인가 아니면 창조된 아시아인가 라는 문제를 던지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긴요한 과제는 일본이 아시아, 그리고 전 지구 속에서 점유한 공간적이고도 시간적 위상을 어떻게 파악해 왔던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고찰하기 위해서 아시아라는 지역이 언제 어떠한 경위를 거쳐 '근대세계'에 편입되었고, 그에 따라 지역 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가를 어디까지나 '근대세계' 전체로서의 의미연관 속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일본과 아시아를 차별화내지 동일화하는 것에 의해, 도대체 무엇이 의도되고, 무엇이 제기되고 있는가? 거기에서 아시아를 하나의 세계로서 한데 모아주고 있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가? 혹은 애당초 아시아라는 하나의 세계로서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유기적 통합을 갖고 있었나 하는 점에 관해 어떻게 논의되어져 왔는지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24] 이를 위해 그가 취한 연구의 시각은 바로 기축(基軸), 연쇄(連鎖), 기투(企投)이다. 이 가운데 연쇄는 중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주목을 끈다. 그것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가 각기 독립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상정하고, 이에 서구와 아시아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이동과 연쇄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아시아'는 어떤 인식을 획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하는데, 이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관계맺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는 일은 곧 중국의 근대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25]

한편 이런 흐름과 달리 또 다른 차원에서 일본사상사 및 중국학 연구자들에 의해 동아시

24) 山室信一,『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 2001, (한글본)야마무로 신이치, 정선태·윤대석 역,『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출판, 2018.

25) 야마무로의 작업이 동아시아의 근대화에 있어서 '일본의 충격'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음에 대해 비판했던 오가타 야스시(緒形康)는 또 사회과학의 객관적인 기술 스타일에 의해 기록되어가는 즉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는 연구가 지닌 문제점, 즉 지역연구로서의 아시아학에 담긴 이데올로기성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を読む」,『中國-社會と文化』, 제20호, 2005.

아가 소환되고 있다. 그것은 한문훈독을 둘러싼 논의에서 비롯되었다. 엄밀히 말해 한문훈독이란 고대 아시아의 보통문이었던 한문을 일본식으로 읽어내고, 또 일본의 근대적 문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국학적 입장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하지만 여전히 고전 문헌 즉 한문의 독해라는 차원에서 논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학을 비롯한 중국학이란 외국학의 입장에서 거론될만한 주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 일본에서 한문훈독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한문훈독이란 전통적인 한문독해법이 통용되었다. 메이지 이후의 중국학 또한 기본적으로 이러한 훈독법에 의해 한문문헌을 독해했다. 이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고 중국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중국어를 외국어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은 도쿄제국대학 문학과에 박언학과가 신설되고, 이 박언학과에 서양어를 제외하고 지나어가 개강되면서 부터다. 하지만 박언학에서 중요한 것은 유럽의 필로로지 연구 즉 중국 고대문헌을 언어학적으로 해석해온 전통이었다. 따라서 중국어로서 지나어를 학습하는 일은 외국어학교나 중국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고, 일반적인 중국어문의 독해는 훈독법에 의거했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문학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중국문의 본질적인 이해는 결국 중국어에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중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 훈독법은 한문독해에 있어서의 편리함을 무기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비(非)중국전공자들도 훈독법에 의해 한문독해가 가능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점이 일본의 중국학 발전을 위한 대중적인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메이지 20년대에 훈독체가 한문을 대체했고, 이로부터 훈독체(법)이 근대 일본의 보통어로서 확립되었다. 다시 말해 한문이라는 문체는 표현매체로서의 기능성과 역사가 곧 자기정신이라는 정신성을 갖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정신의 규범을 제시하는 문체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보편성을 나타내던 한문이 점차 이 정신성의 측면이 서구화에 의해 와해되고 이제 남은 것은 기능성이라는 측면뿐이었는데, 이 기능성의 측면마저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훈독(체)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특히 국민국가의 국민교육이란 관점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의 단계적 향상을 위해서 익히기 어려운 한문보다 훈독체 쪽이 훨씬 유용했다. 게다가 네덜란드어나 영어의 번역에서 사용되었던 문장 역시 훈독문이었다. 이렇게 된 데는 서구로부터의 신지식 수용이 한문을 경유했기 때문인데, 청나라에 있던 선교사들이 만든 사전을 활용하면 서양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는 일은 힘들지 않았고, 아울러 이미 당시 지식인들이 실용적인 문장으로서 훈독문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한문이 내포하고 있던 사대부의 에토스를 대신하여 실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한 것이다. 게다가 신조어를 받아들이기 쉬운 점에서 미디어의 문장으로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또 번역이 문명개화의 행위로서 계몽과 그 뿌리를 함께 했던 점은 번역에 사용된 훈독문이 곧 계몽의 문체였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리고 훈독문은 당시 메이지 시기의 현대문이었다. 여기서 현대문은 구어가 아니라 문어이다. 메이지 시기의 현대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경계가 문어와 구어의 사이가 아니라, 한문과 훈독문의 사이에 있었고, 이제 한문은 부자유하며 예로부터 내려온 질록(秩祿)에 얽매여 있는 문체라면, 훈독은 유용하고 자유로우며 문명개화의 세상에 걸맞은 문체였다. 이와 함께 국민을 근본으로 하는 국민국가의 탄생에 있어 균질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을 때, 문장 또한 균질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문장이 바로 훈독문이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문장이 된 것이다. 근

대 일본어의 변화를 이야기할 경우, 일반적으로 언문일치체의 성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본이지만,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보통문 내지 금체문(今體文)으로 성립된 훈독문이라는 점이다.[26] 게다가 이 훈독법은 메이지 45년에 일본의 문부성에서 국어교육에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國語の送仮名法'을 발표하여 새로운 구어체문장의 교육에 대응하면서 이 때 한문교육에 대해서도 훈독법의 조사보고를 병기하여 평이한 훈독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일본 중국학의 성립이라는 관점에서 한문에서 훈독문으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기 때문에 다소 길게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한문을 읽고 쓰는 것의 의미 그리고 한문이 갖는 이상의 변화로 인해 한학의 붕괴가 표상되지만, 다른 맥락에서 한문은 여전히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개입해왔다는 점이다. 이를 일본 연구자의 표현대로 한다면, '한문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훈독문(체)는 지속적으로 근대 일본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지금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한자의 장기 근대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문의 직독과 훈독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중국학의 관점에서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해석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어를 배워야 하고 또 처음부터 음독으로 중국연구를 출발한 세대들이 절대 다수인 지금도 훈독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인 한문교육의 입장에서는 편리한 훈독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반면에 전문적인 중국학 연구자들은 음독을 주장하는 이러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다이쇼기 이후부터 있었던 것이다. 곧 지나학자 아오키 마사루(青木正兒)가 「한문직독의 추천」이란 글을 써서 메이지이래 처음으로 훈독에 반대했던 것이 1921년이다. 이후 훈독과 음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는데, 최근에 고전의 부활이 운위되고 아울러 중국의 고전이 일본학의 일부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훈독은 자연스럽게 다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훈독론을 전개한 논문 모음집에서 편자인 나카무라 순사쿠(中村春作)는 "훈독이라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내재하는 고전의식의 양상 및 고전과 현대와 접속, 중국(타자)와의 거리감에 깊이 관련된 문화이해와 문화형성에 직접 연관된 방법으로서 재고되어야하는 문제다. —— 그런 의미에서 훈독의 문제는 바로 사상사적인 논점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거기에는 근세이후의 우리들에게 고전의식과 일본문화에 있어서의 타자상의 모습이 깊이 관계하고 있다. 훈독(및 훈독에 대한 의식)의 문제는 이문화수용의 일반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일본어와 일본문화의 자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문제, 근세이전의 중국수용과 근대이후의 중국학과의 사이에 있는 연속과 단절의 양상(거기에 대한 전문적 연구자의 자각의 양상)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라고 말한다. 한편으로 한자, 한문, 훈독도 단지 기법론과 외국어 교육론, 혹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평가와 문맥을 넘어서 '근대의 학지(學知)'비판의 세례를 경유한 그 앞에 새로운 보편적, 상대적 지평의 아래에 논의하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더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지역의 문화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그는 동아시아가 넓게 한자라는 보편적 표기체계의 다양한 습득을 통해서 자언어를 구축하고 자문화(그리고 자문화의식)를 구성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이두(吏讀)-구결(口訣)을 거친 독자적인 한문세계를 구성해 왔는데, 그러한 한문세계와 일본근세의 한문

26) 이상은 사이토 마레시 지음, 황호덕 외 옮김,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한문맥과 근대 일본』, 현실문화, 2010, 제3장 참조.

세계는 어떤 공통성과 이질성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도 사실 이제까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그래서 훈독을 논하는 것은 근세부터 근대에 이르는 일본문화의 실상을 근대국가의 틀을 벗어던지고 다시 부조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한문문화권의 다양한 성립의 방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단서로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러한 시각은 한자=중국이라는 대전제의 자명성에 대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한자문화의 재파악에 의해 동아시아의 국가를 상대화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한자에 의한 문명화라는 역사현상을 묻는 것은 중국이라는 틀의 자명성을 묻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중국 자체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복수의 나라가 한자에 의해 통일되어 탄생한 국가라고 보는 시각으로 연결된다. 이것은 중국의 역사에서 증명할만한 여러 사례가 있다. 결국 그는 훈독론은 단지 일본의 독자적인 기법이라는 시점을 넘어서 동아시아 한문세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성되었는가라는 것을 그 실상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하는 보편적인 의론의 장으로 열려져 갈 필요가 있고, 그러한 문화연구의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보편에 대한 지향을 가짐으로서 이 소위 낡은 화제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7]

훈독을 논하는 것이 이상과 같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앞으로 전개될 연구를 지켜볼 일이지만, 아무튼 동아시아에서 '한문'이 갖는 위상과 의미는 다시 재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중국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전통적인 한학이든 유럽 시놀로지의 방법론인 문헌해석학을 받아들인 지나학이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고전 원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었고, 그 전통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훈독법은 이문화의 수용이란 관점에서 주체성을 논할 수 있는 성격도 있지만, 일본의 근대화가 한자라는 문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국학과 중국학의 복잡한 연관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메이지기 사상가들의 문장에서 특히 유명한 탈아론자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 분석에서 그 한학적 특징을 파악한 연구들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최근 일본 중국학자들의 (동)아시아적 시각의 도입이란 사유에서 드러난 일본의 중심성을 해체하는 탈주체화 주장[28]이나, 반대로 일본의 아시아를 재구하려는 움직임에서 한문훈독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대 중국을 해체하려는 시도들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문제는 결국 근대이후 성립된 학문 또는 근대지(近代知)에 대한 탈구축이라고 할 것이다. 이 속에서 일본의 중국학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이며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27) 中村春作, 「なぜ、いま'訓讀'論か」, 中村春作·市來津由彦·田尻祐一郎·前田勉 共編, 『'訓讀'論: 東アジア漢文世界と日本語』, 勉誠出版, 2008.

28) 村田雄二郎, 「東アジア研究-誰にとって? 誰のための?」, 『中國-社會と文化』, 제17호, 2002.

【참고문헌】

溝口雄三,『方法としての中國』, 東京大學出版會, 1989.
미조구치 유조, 서광덕·최정섭 역,『방법으로서의 중국』, 산지니, 2016.
山室信一,『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岩波書店, 2001.
야마무로 신이치, 정선태·윤대석 역,『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소명출판, 2018.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함동주 역,『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 지성사, 2004.
山田利明,『中國學の步み』, 大修館書店, 1999.
江上波夫 編,『東洋學の系譜』, 第2集, 歐美編 총 3권, 大修館書店, 1992.
砺波 護·藤井 讓治 編,『京大東洋学の百年』,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2.
平野 健一郎·土田 哲夫·村田 雄二郎·石 之瑜 編,『戰後日本の中國研究』, 平凡社, 2011.
岸本美緒 編,『東洋學の磁場』(帝國日本の學知 第3卷), 岩波書店, 2006.
中見立夫,「日本的'東洋學'の形成と構圖」, 岸本美緒 編,『東洋學の磁場』(帝國日本の學知 第3卷), 岩波書店, 2006.
류준필,「19C말 일본 대학의 학과 편제와 國學·漢學·東洋學의 위상」,『코기토』, 65, 2009.
고야스 노부쿠니, 김석근 역,『일본근대사상비판』, 역사비평사, 2007.
竹內好,「支那を書くということ」,『內なる中國』, 筑摩書房, 1987.
緖形康,「『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を読む」,『中國-社會と文化』, 제20호, 2005.
사이토 마레시 지음, 황호덕 외 옮김,『근대어의 탄생과 한문: 한문맥과 근대 일본』, 현실문화, 201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漢學, 國學, 中國學, 蘭學, 東亞
	영문	Sinology, Hangaku, Kokugaku, Chinese Studies, Rangaku, East Asia

Academic Exchange Patterns in Modern Northeast Asia sea region
: Establishment of Japanese Chinese Studies and Present

Seo, Kwang-Deok

Since the modern era, material and human exchanges have begun to be frequent in the Northeast Asian sea region. Of course, before the modern era, there was no exchange through the sea. From an academic standpoint, it is one of these cultural exchanges that Chinese traditional scholarship, Hangaku(漢學), is embrac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 In the Tokugawa shogunate, the doctrines[teachings] of Chu-tzu introduced in earnest in Japan came in through the Joseon and mainland China and grew rapidly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was also accepted that the Western studies represented by Rangaku(蘭學). In this situation, Japan, which faced the Meiji era, needed Kokugaku(國學) as an ideology of the nation state. In the process of the birth of this Kokugaku, the Western studies and Hangaku became antagonistic. The Japanese intellectuals who tried to establish a Kokugaku as a modern scholarship are in a worry about what kind of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with what Hangaku had accepted before modern times and what contents should be included. This was connected with the problem of establishing Chinese studies in Japan as a modern discipline, and in this process, it came to refer to Western Synology. Japanese Chinese Studies was born in this process, and it is reaching to the present.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formation of Japanese Chinese studies and examines what Chinese studies are aiming at in Japan at present. This is expected to give some implications for our future Chinese studies.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서광덕 / 徐光德 / Seo, Kwang-Deok		
	소 속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Em@il	skd2021@hanmail.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11월 09일	심 사 일	2018년 11월 19일
	수 정 일	2018년 12월 16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21일